

# 콘텐츠 생산없이 디지털 미래 없다

## 동국대 전불연, '불교문화재...' 세미나 취약한 IT기반 · 기술력 중요성 등 지적

"불교계 홈페이지 중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 부다피아(www.buddhapia.com)가 사회·문화·종교 카테고리 내에서는 4,157위로 185위인 기독교의 '갓피플닷컴'이나 927위인 '가톨릭인터넷'에 비해 현저히 낮다."(신지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단 팀장)

"인터넷 상에 유포돼있는 성보문화재 해설문안, 통일된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동국대 정우택 미술사학과 교수)

제6회 전자불전연구회 학술세미나가 10월 21일 '성보문화재 콘텐츠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스님, 동국대 정우택 교수(미술사학과), 국립중앙박물관 최승천 관장, 신지용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보화사업단 팀장 등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인터넷 내의 불교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신 팀장은 "불교문화와 콘텐츠" 논문을 통해 "기독교, 천주교 등 타종교 홈페이지는 300여 개에 이르는데 불교 홈페이지는 겨우 38곳만 검색 된다"며 불교문화와 관련된 인터넷 콘텐츠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불교계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자 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인터넷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단방향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용자와 운영자간의 괴리' 등으로 꼽았다.

이어 신 팀장은 "지금부터라도 인터넷 불교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향후 불교계는 이미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주제가 명확하고 서비스 대상이 다양한, 고품질의 불교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이 전반적이어서 수익모델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콘텐츠를 기획·수집·가공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스님은 "스캐너 제작, 관련 관광 상품 개발 등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문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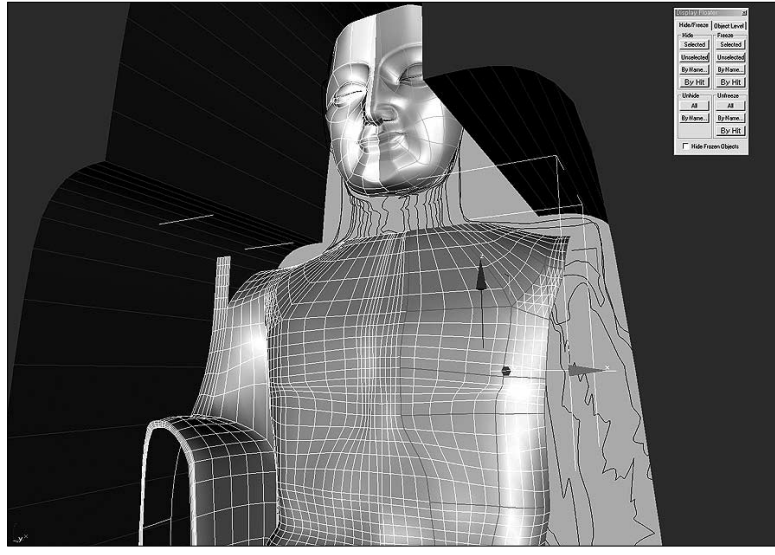
업으로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전략 채택 방안 △종립학교 내에 성보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 △학제간의 협력과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해 콘텐츠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불교문화 콘텐츠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윤규 동국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문화 지식과 컴퓨터 공학 기술, 문화 콘텐츠 개발·활용 기술 등의 네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복원전문가 박진호 씨(숙명여대 강사)는 '아프가니스탄 비미안 석굴의 디지털 복원' 논문을 통해 불교문화 콘텐츠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박 씨는 파괴된 비미안 석굴을 첨단 3D 기술을 통해 복원한 예를 설명하며 "21세기는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냐가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력으로 문화재를 보여주는냐가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renby@buddhapia.com



일본 미술사학자 구마모토 쇼진 교수의 실측도를 바탕으로 박진호 씨가 디지털 복원한 비미안 석굴.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2>



### 정신과 물질의 경계

생각하는 것만으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개입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팔이 없는 지체부자유자들도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생명체는 자신을 이루고 있는 장기들과 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작은 세포, 그리고 세포내의 여러 유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들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으며 서로 밀접하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고 있다. 생체 내에서의 유전자, 세포, 장기 등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은 화학 반응을 거친 전기적 신호이며, 모든 세포는 나름의 전기적 과정을 지니고 있고 인식과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대표적인 전기 전달 세포다. 뇌는 이러한 전기적

가에서 말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운(五蘊)에서 식(識)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식(識)이라 불리는 우리의 주관적 정신작용과 대상으로서의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물체와의 경계선의 애매모호함을 다시 한 번 보게 된다. 생체 내에서 정신작용과 물질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며 영향을 미치고 고정된 실체 없이 항상 흐름으로서만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 및 과정이 이러한 관계의 매체(媒體)라는 점을 보여 줄 뿐이다.

현대과학은 비록 환원론이라는 방법론적인 한계는 있지만 결국 세상의 전기적 인과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번의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식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 정신과 물질은 서로 영향주는 관계 '고정된 실체 없음' 속 연기 파악해야

신호를 뇌신경세포의 종합적 유형(pattern)으로 하여 저장하고, 평상시에도 뇌파라고 불리는 다양한 전기적 과정을 내고 있다.

신경정신학에서는 이미 뇌의 어느 특정 부위와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관찰해 왔다. 이러한 유인관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뇌파나 작은 운동자의 움직임을 전기적으로 대상과 교류할 수 있는 정도로 증폭시키고 이 증폭된 전기적 신호를 무선으로 보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생각으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생체 내에서 뇌의 전기적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수족과 같은 원리로서 거리만 떨어져 있다 뿐이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정신작용은 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존한다는 점이다. 반야심경에서의 오운개공(五蘊皆空)이라는 말처럼 과학이 다루는 식(識)이란 오직 변화하는 관계로 나타날 뿐 실체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삼계유식(三界唯識)이란 표현처럼 정신과 물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실제로 없기에 실제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연기적 관계성(依他起性)을 바탕으로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도로 증폭시키고 이 증폭된 전기적 신호를 무선으로 보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생각으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생체 내에서 뇌의 전기적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수족과 같은 원리로서 거리만 떨어져 있다 뿐이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정신작용은 불



그림 : 문병성

## 인터뷰



### '불교용어 표준화' 주제 기조강연 하는 이평애 교수 "인터넷 시대 한글화·현대화가 목적"

어 5,000개 표준안이 학술용어표준화 협의회에 제출돼 일단락된 상태다.

이 교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한글세대가 늘어가는 상황 변화를 간파해선 안 된다"며 "불교용어 표준화 그런 변화에 대한 대처 방식이며, 불교 현대화를 위한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문의 자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과서는 표준용어를 따르겠지만 학자들의 연구논문은 강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음표기원칙과 관련, 이 교수는 "원음표기원칙은 인

명·지명·서명 등 고유명사에 국한하고, 개념어의 경우 기준용어를 가급적 그대로 살려 했다"며 "개념어 가운데 기존 번역어가 적절치 않을 경우에 한해 원음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있지만 불교용어를 표준화해야한다는 이 교수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 교수는 "불교를 한글화하고 현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불교용어표준화는 그 방편이다"고 강조했다.

"불교용어 50,000개쯤은 표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사전편찬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 禪 카이로프락틱, 제3기 교육생 모집

- 1. 설립취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에 힘쓰고자 설립함.**
- 2. 교과목:** 1) 카이로프락틱(허리, 어깨, 골반, 경추등 척추교정술) 이론 및 실기  
2) 해부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3) 경락, 스포츠 마사지  
\*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강의함**
- 3. 교육기간:** 1) 2급과정 2개월 (총 108시간)  
2) 1급과정 1개월 (총 54시간)
- 4. 지원자격:** 학력 경력 제한없음
- 5. 입학일시:** 2004년 11월 11일(목) 13:00
- 6. 원서교부 및 접수:** 본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내



**인사말씀**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 2기 교육생을 수련시키면서, 많은 공지와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스님과 불자님들의 반응 또한 기대 이상이라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연수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성을 다해 **一路**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 국난극복 소원성취 일광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선망부모 유주무주 태아령, 조상령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일광 스님의 국난극복 소원성취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제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업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기쁨이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남법 합동천도제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정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셨으며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찰에서 영가천도를 해보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합동천도제에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정보살님의 기쁨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남법 합동 천도제 때에 생긴 영험담들.**
- 합동천도제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전지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제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뒤(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은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어떤 불자님은 천도제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타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에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제 이후로 양장직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형질수술하던 딸이 천도제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에도 항상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제 이후로는 아꼈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제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를수없었던 갈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기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 10월 1일 - (군산시) 그전부터 영가에 장애가 있는 줄을 알고 몇차례 천도제를 많은 사찰에서 지내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합동천도제를 지낸 그날 밤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고 기어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꿈을 꾸 이후 정신이 맑아졌고 몸이 가벼워 졌다고 한다. (천안시) 천도제 이후 짓눌렸던 어깨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합동천도제는 매일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동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기쁨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합동천도제 동참 보시금:**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 서울역 → 강남터미널 매일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시켜 드립니다